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흡연, 유방암 환자에 치명적”

유방암 종양이 발생한 부위만 절제하는 소괴(小塊) 절제 수술과 함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흡연은 생존기간을 단축시키는 치명적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폭스체이스 암센터의 칸 구엔 박사는 20일 미국치료방사선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이 같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의학뉴스 전문 통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칸 박사는 폭스체이스 암센터에서 1970~2002년 사이에 유방암 소괴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 1천 39명을 평균 67개월 지켜본 결과 담배를 과거에 피웠거나 현재 피우고 있는 환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은 환자에 비해 생존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칸 박사는 이는 환자에 따른 여러 가지 예후 요인들을 감안한 결과라고 밝히고 이는 유방암의 종합적 사후관리에서 금연이 필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3.10.21)

폐암 사망 남성 72%가 흡연 탓

연대, 10년간 121만명 조사

폐암으로 죽는 남성의 72.5%가 담배 때문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죽을 위험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암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의 31.5%, 췌장암 사망자의 23.7%, 간암의 14.5%가 담배 탓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실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池善河)교수가 미국 존스홉킨스대 조너선 사렛 교수와 공동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30~88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1백21만 3천여명을 추적한 조사에서 나왔다.

흡연이 주요 암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비흡연자와 사망 위험률을 비교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남성(평균 19.1년간 15개비 피움)은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6.5배나 높았다.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 ▶방광암은 1.9배 ▶위암은 1.6배 ▶췌장암은 1.4배 ▶간암은 1.2배였다.

여성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이 2.5배, 자궁경부암이 1.7배, 췌장암이 1.2배 가량 높게 나왔다. 남성에 비해 낮은 이유는 흡연 시작 시기가 늦고 양이 적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3.10.15)

성인남자 흡연을 50%대로 떨어뜨려

금연바람이 불면서 올 들어 성인 흡연인구가 69만명 줄어든고, 성인남성 흡연율도 5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 성인 1천 520명(남성 749명, 여성 7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흡연율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56.7%로 지난해의 60.5%에 비해 약 3.8% 포인트 감소했다.

협의회는 선진국에서 매년 1~1.5% 포인트 정도 흡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비춰 우리의 경우 급속한 흡연율 감소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20대 흡연율이 지난해 71.1%에서 올해 66.2%로 4.9% 포인트 감소했으며, 30대와 40대는 지난해보다 흡연율이 각각 5.1% 포인트 줄어 들었다. 20세 이상 여성 흡연율도 지난해 6%에 비해 올해 3.5%로 2.5% 포인트 낮아졌다.

협의회는 또 올해 추정된 우리 나라 20세 이상 흡연인구는 1천 26만명으로 지난해 1천 95만명에 비해 69만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흡연인구 약 1천 300만명에 비하면 274만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담배를 끊은 지 6개월 됐다는 응답이 40.2%였고, 금연한지 1년 됐다는 응답이 29.2%로 나타나는 등 무려 69.4%가 최근 1년 이내에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을 시도한 이유로는 '건강이 나빠져서'가 57.3%로 가장 많았다. 반면 금연실패 이유로는 '스트레스가 쌓여서'(40.2%), '인내 및 의지력 부족'(22.4%), '주변에 피우는 사람이 많아서'(11.6%), '습관성 때문에'(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동아일보 2003.9.30)

심장판막병 합병증 없이 완치 가능

서울아산병원 새 수술법 98% 성공률

배수 펌프장의 문이 망가져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심장 판막병'을 합병증 없이 완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됐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는 "테프론이라는 특수 재질의 링과 띠를 이용해 심장판막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수술법을 개발, 대동맥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자 74명을 대상으로 시술한 결과, 98% 이상 성공했다고 밝혔다.

우리 몸 속의 심장은 펌프작용을 통해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 보내야 하는데 선천적 혹은 후천적 원인으로 대동맥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심장병 환자들은 밸브 역할을 하는 판막이 손상되어 밀어낸 피가 다시 심장 안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역류 현상 때문에 심장 내부 공간에 피를 완전히 비우지 못해 심장의 압력이 높아지고(고혈압),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질환으로 환자는 결국 사망한다. 지금까지 이런 심장판막병 환자들은 특수 처리된 인조 판막이나 돼지 판막이나 뇌사자의 판막을 이식해 연명해 왔다.

송 교수는 "이번 대동맥 판막 성형술의 개발로 삶의 연명이 어려운 심장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면서 "대동맥 판막 폐쇄증 발병의 새로운 이론을 정립했다는 것이 이번 수술이 갖는 중요한 의의"라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새로운 심장판막 수술법과 치료성적을 'ECHO SEOUL 2003'과 추계 흉부외과 학회 등에서 발표했으며 앞으로 국제 학회에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2003.10.22)

고혈압은 지속적인 체중조절이 중요

고혈압을 피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 대학의 레베카 하디 박사는 의학전문지 '랜셋'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1946년에 태어난 3천60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의 BBC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하디 박사는 고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체중관리를 시작하지만 어려서부터 체중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고혈압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디 박사는 조사대상자들이 36세 때 혈압과 체질량지수(BMI :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측정하고 43세와 53세 때 다시 혈압을 잰 결과 BMI가 높은 사람일수록 53세에 이르기까지 급속도로 혈압이 상승하는 등 혈압이 BM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육체노동자들이 사무실 근로자들에 비해 혈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육체노동자들이 사무실 근로자들보다 일반적으로 체중이 높은 것과 연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디 박사는 밝혔다.

하디 박사는 이 결과들은 중년 이후에 고혈압을 막으려면 평생 지속적인 체중조절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출생시 체중이 25kg 이하인 경우 나중 고혈압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03.10.13)

커피, 남성 생식능력 향상 효과

커피가 남성 정자의 활동을 촉진,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BBC 인터넷판이 브라질 과학자를 인용, 14일 보도했다.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 연구진은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미생식의학회(ASRM)총회에서 하루에 커피 몇 잔을 마시는 것이 정자의 활동을 촉진시켜 임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커피의 카페인을 제외하고 담배나 마약류는 정자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브라질팀의 같은 조사에서 담배는 정자의 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발기부전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뉴욕주 버팔로 대학 과학자들의 연구결과 마리화나 복용자의 경우 정액량과 정자 수가 현저히 적으며, 생식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화나는 정자를 너무 빨리 움직이게 해 난자와 만나기도 전에 이미 정자의 기력이 소진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동아일보 2003.10.14) 